섬유연합회, 국내 최대 섬유교역전 개최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9월5-7일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 최대의 섬유교역전인 <프리뷰 인 서울 2012>를 개최한다고 9월4일 발표했다.

13회를 맞는 2012년 행사에는 역대 최대인 261개사(해외기업 92사 포함)가 참여해 다양한 첨단 섬유소재를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세계 섬유소재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유럽, 일본, 중국, 타이완, 인디아 등 유명 해외기업이 대거 참가한다.

전시회에서는 고기능성 섬유소재는 물론 지속 가능한 친환경 소재, 산업용 소재 등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특히 2012년 아웃도어 열풍을 반영하듯 초경량, 발열, 항균·항취, 투습방수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스포츠웨어 원단을 선보일 계획이다.

행사기간에는 <한국-독일 산업용 섬유 비즈니스 세미나>, <한국-일본 산업용 섬유소재 심포지엄>, <한국 기업을 위한 우즈벡 섬유산업단지 설명회> 등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됐다.

<화학저널 2012/09/04>